

새정치 깃발 하나된 야당 ... 野심찬 출발

새정치연합 탄생 의미

지방선거 1대1 대결구도 수도권 승부에 성패 달려 갈등 해소 단일대오 과제

“지방선거를 점령하라.”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첫발을 내딛던 새정치민주연합에 주어진 지상과제다.

원내 130석의 제1야당으로서 지방선거 승리가 ‘새정치’의 길을 열고 ‘집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이다.

당장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새정치의 상징성 있는 콘텐츠 마련이 시급한데다 경선 룰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에 대한 불씨도 여전하고 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통합야당 출범=이날 창당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 규모의 거대 야당으로 탄생했다. 외형적인 면에서 156석의 새누리당에 크게 밀리지 않는 규모로 한국 정치 지형은 다시 양당 체제로 재편됐다. 이로써 신당은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1대1로 직접 승부를 겨룰 수 있게 됐다. 새로운 통합 야당의 출범은 보수 진영 10년 집권에 맞서 진보 진영의 정권 창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특히 호남 민심은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 창출의 가능성을 보일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지방선거 성적=지방선거 성적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로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현재의 전망은 어둡다.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 기초단체장 선거 패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정당 조직의 뿌리인 기초의원 무공천도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승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광주, 전북 등 8개 광역단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호남을 제외하고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이다. 특히 수도권 승부에서 패배할 경우, 지도부 총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의 상징으로 차기 대선을 꿈꾸고 있는 안철수 공동대표도 정치적 치명상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돌리란 계과 갈등이 불가피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심각한 내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보수층 공략과 함께 ‘민생 카드’를 제시하며 ‘새정치’ 바람을 일으킨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1대1 구도라는 점에서 새정치의 바람이 불고 오만한 여권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한다면 광역단

체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단일대오 구축=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되는 것은 구 민주계와 새정치연합 측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단일대오 구축’으로 분석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감동적인 경선 드라마도 필요하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계과 다툼이나 지분 나눠먹기식의 전략공천은 내부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은 물론 새정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지방선거 패배를 부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새정치비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 혁신안을 적극 제시하면서 ‘새정치’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위·시간·세월 ... 그 앞에 선 인간의 무기력



(67) 운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이다지도 욕될까~/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슬픈 사람의 뒷모습이/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윤동주 작 ‘참회록’중에서)

시인에게 운석은 암담한 시대 상황에서 마주한 불행의 역사, 슬픈 운명을 암시하는 시작 메타포였다. 밤하늘 아래 포물선을 그으며 떨어지는 별뚥뚥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시작 감성이었을 것이다.

최근 경남 진주, 전북 고창 등에 운석이 떨어져서 화제가 되고 있다. 운석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보니 운석 사냥꾼도 등장했다. 우주에서 날아온 암석에 부치는 시작 상상도, 운석에서 지구 출생의 비밀을 밝혀려는 과학적 사고도 찾아볼 수 없다.

별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1898~1967)의 작품 ‘피레네의 성’(1959년 작)은 전설 속의 라퐁타슴처럼, 아니 떨어지다 멈춘 운석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히 자극한다. 운석이 대기 중에서



르네 마그리트 작 ‘피레네의 성’

다 타지 않고 지구 중력에 의해 끌여 당겨지는 것이라면, 상상 속의 라퐁타슴은 다이아몬드처럼 박힌 비행석이 중력에 반하는 힘을 갖고 거대한 크기의 바위를 공중에 둥둥 떠 있게 하는 것이다. 마그리트는 공중의 성을 실제처럼 보이도록 화면을 청색, 회색, 황백색으로 채웠다.

자연의 무한한 잠재성의 상징으로서 돌에 매혹되었던 마그리트는 바위가 지니고 있는 무생물성, 시간의 흐름, 세월의 축적, 그 앞에 선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반고딕, 반 사르센 양식의 요새를 보며 잠시나마 우리의 의식을 무한 상상의 우주 차원으로 확장시켜 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여전히 아리송한 신당 경선 룰

새정치연합 광역단체장 경선방식 ‘국민경선’ 채택 확정

여론조사 + a 방식 배심원제·공론조사 등 기준·비율 결정 안돼 호남 전략공천 논란도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일반 국민과 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선거인단에 참여시키는 ‘국민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분과 이상민 공동위원장은 26일 YTN 라디오에 출연, “새정치연합과의 통합 사정을 반영해서 당원, 비당원을 고려치 않고 특강이 선거인단으로 삼는 국민 경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당원 없이 창당준비위 상태에서 신당에 참여하는 안철수 의원 측의 입장을 고려, 일반 국민과 당원의 구분 없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 경

선’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 경선에 여론조사가 가미되는 것은 당연하고 아울러 여론조사만으로 끝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 배심원제와 공론조사 등 이 때까지 거론된 다양한 룰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민경선의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반영 비율로 후보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 30%, 배심원제 30%, 시민 참여 40%의 ‘박원순 서울시장 경선 방식’이 도입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배심원 구성 방법과 선거인단 구성 방법에 대한 이견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선거인단 구성 방법과 관련, 중앙당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구성하

는 방안과 일반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방법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배심원단도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을 선정하는 방안과 전문가 집단 배심원단 구성, 공론조사 방식의 배심원제 구성 등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공천 여부도 논란이다. 일각에서 민주당의 기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최소 1곳은 안철수 의원 측의 후보를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가 그동안 전략공천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 온데다 통합 신당이 새정치를 상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공천 카드가 제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기존의 민주당 진영 후보의 기록권을 최소화하는 경선 룰이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신당 출범했지만 ... 대변인은 ‘공동’ 비서실은 ‘따로’

당조직 결합 시간 걸릴 듯

26일 중앙당 창당을 통해 공식 출범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의 ‘한살림’ 준비에 분주하다.

두 개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조직을 최대한 하나로 합칠 방침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의 얼굴에 해당하는 대변인단은 공동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이윤석·한정애·박광은 대변인으로 구성된 대변인단에 금태섭 대변인을 포함한 새정치연합 인사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당직에는 원의 인사가 많이 포진할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의 체제를 이어받기로 했지만 당헌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의 당직 겸임을 최소화하기

로 함에 따라 안 의원의 새정치연합 측 원의 인사들이 대거 당직에 기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6·4 지방선거 전 대폭 인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대표 비서실의 경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2명을 각각 보좌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된다.

두 대표의 집무실로는 현재 민주당 사무총장실과 원내수석부대표실이 각각 사용된다. 현재 김 대표의 집무실은 양측 비서실이 함께 근무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당사의 경우, 양측의 건물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한 쪽은 본관으로, 다른 한 쪽은 별관으로 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연구원의 경우는 양측이 법인으로 등록된만큼 조직을 완전히 합치기에 시간이 걸린다.

연구, 토론회 등을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정리’가 쉽지 않거나, 나아가 충돌 소지가 높은 지점들도 있다.

당 인사나 재정, 공직선거 공천 등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당대표 직인을 누가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나뉘어 치른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이 서로 다른 대표직인이 찍힌 공직후보추천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 이른바 ‘육세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아가 6·4지방선거 공천룰, 주요 당직 배분은 양측이 당내 입지를 위해서라도 물리칠 수 없는 ‘뇌관’으로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질의 즐거움 동반자!!!

대표전화, (062) 234-3222
FAX, (062) 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무안공항에서 M로 떠나는 중국여행!!

ALL포함 상해/항주/황산 4일 **1,150,000**
출발일: 5월2일

ALL포함 상해/장가계/천문산 4일 **1,250,000**
출발일: 4월16일

상해/영파/신선거/설두산 4일 **769,000**
출발일: 4월18일

상해/설두산/신선거/주가각 5일 **869,000**

아시아나로떠나는 북경 태왕산 매주금출발

ALL포함 북경 태왕산 **1,050,000**

목포 MBC 와 함께 떠나는 상해/영파/신선거/설두산 4일 **798,000**
출발일: 2014년 4월 29일, 9월, 11월, 18일 (총 5회 확정)
*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터키여행

출발확정!! ALL포함
대한항공으로 떠나는 터키 일주 9일
출발일 5월09일 **3,190,000**

5월 2일~7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출발!!
터키항공으로 떠나는 터키 일주 9일
출발일 2,590,000~

*불포함: 공동경비, 유류할증료 (₩460,000/2월기준), 성급차

베트남, 캄보디아 **990,000~**
4박6일 *불포함: 여권 및 개인경비, 유류할증료, 캄보디아 비자비

카멜리아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가죽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299,000**

출발일 4/6, 9, 13, 19, 4/23, 5/4, 5/7
*불포함 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족단위 환영합니다. (별첨1동행 드립니다)

가죽

선착순 20명!
히타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399,000**

출발일 4/6, 9, 13, 19, 4/23, 5/4, 5/7
*불포함 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항공

일본고급 료칸 및 특급호텔 숙박!!
큐슈 3박4일 **599,000~**

항공

특급호텔 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무안-장가계 전세기 3/28~5/30일 [월/금출발]

실속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859,000**

흥격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989,000**

실속 장가계/천문산 5일 [월요일출발] **949,000**

흥격 장가계/천문산 5일 [월요일출발] **1,039,000**

*불포함사항: 중국단체비(₩33,000), 유류세(₩100,000), 기사&가이드비

국내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비(₩10,000), 현지지불관광, 자유석식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ALL포함 정권(합숙기준)

중국여행 홍콩/심천/마카오 **999,000~** 대만/아류/화권 **999,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환 표시, 광고사항 철저하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4-1호

*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여행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 예약시 계약서(서비스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외에 (기사, 가이드, 봉사료, 선택권, 각종 비자비 별도)

* 최신 출발일과 상품에 따라 다름

조이투어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